티벳에서의 7년
티벳의 저항정신
살아있는 부처

티벳영화 3편 시·선·집·중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며 제작됐던 화제작 '티벳에서의 7년'과 '서사적 규모의 기념비적인 극장용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영화매니아들을 열광시켰던 '티벳의 저항정신' '살아있는 부처'가 국내에서 상영된다.

프랑스 장자크 아노 감독의 '티벳에서의 7년'이 극장개봉작인 것과는 달리 독일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 플레멘스 쿠비 감독의 '티벳의 저항정신'과 '살아있는 부처'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단 이틀동안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토론시간도 준비되어 있어 그의 작품세계를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다.

'티벳에서의 7년'(20일 개봉)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던 하인리히 하러의 티벳 체험기를 영화화한 장자크 아노 감독의 작품이다.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중국의 티벳 무력침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은 극찬을 받았으나 책과는 달리 티벳 정신세계에 대한 경외감은 찾아볼 수 없는 백인 우월주의적 관점이라는 혹평도 받았다.

'티벳의 저항정신'(16일 상영)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티벳인들의 믿음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통해 나타난다. 오늘날 티벳에 살고 있는 스님, 유목민들의 생활과 신앙을 통해 중국이 물질적 육체적 파괴만으로는 더 이상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국에 점령당한 티벳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에 불씨가 된 '티벳의 저항정신'은 중국과의 관계 문제로 중국압제에 항거하는 티벳인들의 장면은 삭제하고 상영된다.

'살아있는 부처'(17일 상영) 95년 바이에른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쿠비 감독이 81년 입적한 티벳 고승 기알와 카르마파의 환생을 7년동안 카메라로 추적한 끝에, 동쪽 티벳에서 수도승에 의해 발견된 환생한 소년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이 영화는 티벳인들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영혼불멸의 불교 윤회사상을 티벳 고승의 환생을 매개로 감각적으로 조명해 유럽에 불교열풍을 일으키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

◇티벳을 지탱하는 불교정신을 생생하게 담아내 유럽에 티벳열풍을 불러 일으킨 독일 쿠비감독의 영화 '살아있는 부처'

김지연 기자

단신

석굴암 본존불·불국사 세계유산기념 우표발행

정보통신부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의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표를 발행,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첫 번째 묶음으로 석굴암 본존불과 불국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석굴암은 1백70원짜리 3백만장이, 불국사는 3백80원짜리 1백20만장이 발행됐으며, 두 종류를 합친 전지도 30만장이 선보인다.

日국보 백제관음상 미소 컴퓨터합성 원형 되살려

일본의 국보 중의 국보 백제관음상이 컴퓨터합성을 통해 1천3백년전의 미소를 드러냈다.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인 하이비전 보급지원센터가 현재 남아있는 백제관음상의 색채를 정밀분석, 제작당시의 모습을 컴퓨터 영상으로 복원해 낸 것.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에 소장돼 있는 백제관음상은 고대 한국불교의 일본 전파를 보여주는 불상이다. 4월 프랑스에서 열린 '일본의 해' 행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전시되면서 일본작으로 표기·전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⑦⑧

♦ A man that lives adhering to the cave, who is covered with much sin and sunk into delusion, such a one is far from seclusion for the sensual pleasures in the world are not easy to abandon.

동굴 속에 머물러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사로잡혀 미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 세상 욕망을 버리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Those whose wishes are their motives, those who are linked to the pleasures of the world, they are difficult to liberated, for they cannot be liberated by others, looking for what is before coveting these and former sensual pleasures.

욕구에 따라 생존의 쾌락에 붙잡힌 사람들은 해탈하기 어렵다. 남이 해탈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재의 욕망, 또는 과거의 욕망에 탐착한다.

♦ Lolik upon those men trembling in selfishness, like fish in a stream nearly cried up, with little water; seeing this, let one wander about unselfish, without forming any attachment to existences.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집착해 동요하고 있는 사람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메말라, 물이 적은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꼴을 보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해 착을 버리고.

♦ Having subdued his wish for both ends, having fully understood touch without being greedy, not doing what he has himself blamed, the wise does not cling to what is seen and heard.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잘 알아서 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듣는 일에 팔리지 않는다.

*adhere (v) 집착하다 (~to)
*sunk (a) (시달리~에) 빠져
*delusion (n) 미망, 미혹, 잘못된 생각.
*seclusion (n) 은둔, 칩거(閉居)

주부신행담

내 인생의 해답

서른 여덟살. 그때의 내 인생은 사방이 온통 깜깜한 암흑이었다. 화사한 봄날 너도나도 봄 나들이를 떠나고, 여름휴가 단풍구경 스키장 온천으로 떠나 즐길 때 나는 한줄기 빛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오로지 탈출을 꿈꾸는 일외에는.

10여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느껴야 했던 배신감은 내 삶을 무력하게 했다. 내 나이 스물 아홉살 때 중매로 남편을 만나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그 당시 그 나이에서는 빠르다 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댁도 그랬다.

남편이 가끔씩 외박하는 것 외에는 결혼해서 큰 불만없이 살았다. 사실 남편이 외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럽에 놀러갔다 만난 아가씨란다. 남편은 평소 과묵한 편이었으나 잔정이 없다 뿐이지 나에게 잘하려 애썼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남편은 아이를 입양해 키워 볼까도 했지만 내가 영 내키질 않았다. 둘만의 행복을 택했다. 아이가 없다는게 그렇게 생활을 단조롭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 단조로움이 바로 남편의 외도를 불렀던 것이다.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나니 어느 한곳 의지할데가 없었다. 친정에 가 울고불고 하기도 그렇고, 시댁에 가 '당신 자식이 이러니 책임지시오'라며 화를 내기도 그랬다.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이 뭘 하셨던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던 나는 질식해 버릴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마음이 왼쪽 가슴 쯤에 있는 것일까. 왼쪽 가슴이 조여오면서 몹시 아팠다.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법률상담소며 상담전화에 매달려도 보았다. 그러나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곳은 없었다. 남편을 향한 미운 감정은 가슴이 터져 버릴 만큼 더욱 더 피어 올랐다.

그렇게 1년여를 남편과 헤어지지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을 즈음 선배의 도움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다. 그때는 혼자 절에 갈 용기도 없었던 때라 선배가 절에 간다고 하면 따라가 어설프게나마 의식을 함께했다. 그러기를 6개월여만인 1995년 11월13일. 신도증을 받는데 그때 문득 내 마음 속에 독소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한달에 한번 듣는 큰스님의 법문은 꿀물과도 같았고, 조계사 근처에서 구해 읽은 불서들은 꽁꽁 얼어 붙은 나의 가슴을 녹여주는 햇살이 되었다.

> "그래, 내가 나를 옭아 매고 있었구나 불법 따르는 기쁨이…"

그림 · 이준석

어느 큰스님의 책에서 읽은 글이 머리속을 떠나질 않았다.

'네게 고통을 주는 대상도 실체도 없다. 고통이란 자기 마음의 집착이나 저항에서 온다. 모든 것은 찰나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것을 고정되게 보려는 생각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 내가 나를 옭아 매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가며 가슴이 후련해졌다.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면서 감동과 환희심으로 가슴은 차츰 따뜻해졌다. 밥을 지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느끼고 깨달으며 내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되었다.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따른다. 그 기쁨은 '나' 하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자비가 담긴 마음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려 애쓴다. 부처님은 항상 내 속에 있어 모두에게 유익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픔은 내게 있어 스승이었고, 자아발견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내 남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아픔까지도 감싸안을 수 있게 했던 부처님. 내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든든한 스승이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

최지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날씬한 통화료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만큼 저렴한 PCS 016을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 포교기금」을 통해 가입하시면 납입하신 통화료내의 5%가 자동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보시금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
TEL 02)732-1522/737-8881
FAX 02)737-0697

■ 후 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만족 동기 불교운동본부, 소록새마을, (사)김로심장회

* 예약가입, 실가입에 동참의사가 있으신 스님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 가입과 개통의 절차 ●

예약가입 : 비용부담없이 희망하는 번호를 예약해 놓았다가 필요시 실가입(개통)합니다. 동봉하는 신청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희망번호(되지 네 개)중 기입하여 FAX나 우편으로 현대불교신문사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보내주십시오.

실개통 : 「부다피아 포교기금」계좌로 핸드폰 기기값·가입비 입금과 동시에 개통하여 사용합니다.
■ 부다피아 포교기금계좌 국민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 단말기 가격 및 가입비는 (02)732-1522 영업부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문의 주십시오.

일반이동 : 입금 즉시 개통·시험통화 후 택배(특송)를 이용하여 우송하여 드립니다.

전환가입 : 011,017 사용자는 ₩99,000을 보상해드립니다. 가까운 011, 017 영업소에 가셔서 '해지'하시고 해지확정서, 핸드폰, 밧데리, 충전기를 「부다피아 포교기금」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시고, 잔액을 입금해 주시면 개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모델 : 삼성 애니콜, 삼성 음성인식 2000, LG 싸이언, 현대 걸리버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PCS 016 맞춤요금제도

●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 (10초당) 평상	할인	심야
스페셜 (자네 및 주말에 통화량이 많은고객)	13,000원	38원	9원	9원
라이트 (월 통화량이 평균보다 적은 고객용)	10,000원	35원	28원	18원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품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료통화시간		200分	300分	400分
기본료(1개월)		36,000원	45,000원	53,0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17원	15원
	할인	14원	13원	12원
	심야	10원	10원	9원

●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비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9원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할인	15원	평일 오전 6시 ~ 오전 8시 오후 9시 ~ 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심야	10원	매일 오후 12시 ~ 다음날 오전 6시

● 플러스 인터넷 (월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6,000원의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1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기본료 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分, 98년 1월 한달간 200分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 등은 유료)
•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1월 가입 고객중 프리200, 300, 400을 선택 또는 변경하신 고객은 98년 3월1일 이후 요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